현직교사들 마음 어루만진 템플스테이

부산 한마음선원 콘텐츠 기획
1월 9~10일 상담·촛불재 등
"우리 모두 내면의 힘 있어"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교사들이 사경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

교육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길 서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1월 9일부터 1박 2일간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우리들의 지혜가 세상을 밝혀주길'이란 주제로 마련된 템플스테이는 교권 추락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교사들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나를 고집하지 않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취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첫날 "여러분은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한분 한분은 수천, 수만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밝은 눈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강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한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원래 지혜롭고 어려운 상황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행사는 △입재식 △윤회담 △스님과의 차담 △촛불재 △새벽예불 △내면의 뜻을 따라서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윤회담'에서는 처음 만나는 참가자들끼리 잠자기 전에 뭘 하는지, 음식 먹기 전에 어떤 마음을 내는지 등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속마음을 공유했다.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을 말하고 스님은 조언을 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스님은 "인간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관계이니 우선 자신의 마음부터 잘 관찰해보라"고 조언했다.

이후 촛불을 켜 지혜 재생처인 자신의 근본자리를 지켜보는 촛불재가 이어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촛불재를 통해 참가자들은 마음을 치유하고 근본자리에 대한 믿음, 지혜를 밝힐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내면의 뜻을 따라서'는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내면의 뜻에 따라 실천해보는 시간이었다. 어떠한 어두운 마음도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지혜롭게 재생되어 나올 수 있다는 뜻을 담아 염주를 한 알 한 알 직접 꿰기도 했으며, 대행 스님의 법문을 사경하며 자신이 지혜의 재생처임을 한 번 더 다짐하기도 했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1박 2일의 일정동안 선생님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의 지혜가 세상을 비춰주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매년 방학기간을 맞아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에는 교사 직무연수, 겨울에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한마음선원, 지역청소년 장학금 지원

천곡중 · 호계고 각 300만원
대학생 1명은 전액 장학금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임복룡 천곡중 교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천곡중학교와 호계고등학교 학생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14일 대법당에서 정기법회 및 한마음선원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울산지원과 천곡중, 호계고와 체결된 장학금 지원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천주현 신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달식에서 천곡중 3학년 오유진 학생 등 10명에게 30만원씩 총 300만원이 수여됐다. 장학금은 임복룡 교감이 대표로 수령했다. 천곡중은 내신 석차 연명부기준 졸업성적 상위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호계고에 대한 장학금 300만원도 전득희 교감이 대신 수령했다. 호계고는 학교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경북대 김일여 학생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일여 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이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천곡중과 호계고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과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다"며 "대행 큰스님께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행사를 할 때 지역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어 MOU를 맺고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선발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십시일반 마음을 내주셔서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김일여 학생은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임복룡 천곡중 교감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아래 학생들이 훌륭한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원장 혜안 스님, 총무국장 혜자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천주현 신도회장, 이명희 합창단장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인류 평화에 힘 쏟는 불자 거듭나자"

통영사암연합회 1월 14일
성도절 봉축대법회 봉행



통영불교사암연합회가 성도절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월 14일 마리나리조트 스포츠센터 2층 특별법당에서 열린 법회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 창녕 관룡사 주지 정안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 연화사 혜월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대성암 범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정점식 국회의원, 조형호 통영부시장,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저희 불자들은 신명을 다할 때까지 밝은 자비의 광명과 진리의 등불 아래 영원히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전법 제자로서 법륜을 굴리기를 서원한다"며 "화합 대중이 더욱 단결하여 국가와 인류 평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를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에 가득 채워 주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묵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신심 나는 불교, 재미있는 불교, 나누는 불교를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성도절 연합법회가 그중 하나인 신심 나는 불교"라며 "부처님의 성도를 봉축하는 법회를 통해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불의 감동을 느끼려 한다"고 말했다.

관룡사 정안 스님은 법어에서 "화엄경 첫 구절에는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제대로 발현하지 못할 따름이라서 안타깝다는 부처님의 한탄이 담겨있다"며 "집착과 망상을 던져버리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신심과 견고한 불퇴전의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교는 중생의 이익과 편안,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금강경 독송과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법회를 마쳤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바른 생각·바른 행동으로 살라"

금산사 성도재일 법회 봉행
조실 도영 스님 법문서 강조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가 불기 2568년 성도재일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재일을 맞아 1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봉행된 성도재일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바라밀합창단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도재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 육법공양에 이어 봉행된 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과 더불어 성도재일은 불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 각 사암마다 철야정진을 하면서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새기고 있다"며 "올해는 특별히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님의 법문을 통해 생활에 큰 깨우침이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성도재일 법문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보살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생애 중 설산수도상과 초전법륜상을 설명하고 "불교는 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종교"라면서 "항상 바른 생각과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불교회관 바라밀합창단은 찬불가를 합창하며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도절을 축하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도의 눈을 뜨시고 대각의 도를 성취하신 성도절을 맞아 깨달음의 안목과 자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면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더불어 살 줄 아는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새 회장 소운 스님 취임

성도재일 기념법회 겸해



광주불교연합회는 1월 17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성도재일을 맞아 기념법회와 제7대 신임회장 소운 스님〈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소운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회장 소임은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맡은 일이다. 제가 할 일은 부처님전에 매일 기도정진하고 사부대중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광주불교의 도약을 위해 불교회관 건립 대작불사를 원만히 이뤄내는 것이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운 스님은 이어 "광주불교가 화합된 모습으로 크게 도약하는 길을 모색하고, 수행정진하는 신행풍토를 조성해 포교전법의 길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취임사에 앞서 수석부회장 월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가정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불교회관이 앞으로 많은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공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축사했다.

김대원 신도회장도 "광주불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소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을 빛낸 불자 시상식에선 이금지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광주지회장이 빛고을불자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조계종 광주승보회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 대흥사에서 봉행된 포교사단 광주지역단장 이취임식.

광주 포교사단 단장 이취임

장경덕 신임단장 "포교 매진"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1월 13일 해남 대흥사 보현전에서 '불기 2568년 포교전진대회 및 지역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장경덕 신임단장은 "포교사 배가운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모두 포교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중앙종회의원 설도·향문 스님 등 120여 명이 참여해 단장 취임을 축하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불교를 알리는 우리 모습이 곧 한국불교의 모습이니 지역에서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도 축사를 통해 "불법을 믿는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의 지도법사인 연성 스님(송광사 포교국장)도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남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욕심이니 타인을 생각하며 포교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1년간 우수한 활동을 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포교원 표창 박정현, 총재상 박태백, 포교원장상 김영은·나채순 포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절에서 배우는 구강건강 관리법

마하사, 구강건강 교육 실시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신도들의 구강 건강을 돕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마하사는 1월 12일 경내에서 치과위생사를 초청해 구강 건강을 위한 치아 관리 교육을 제공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치료 받은 치아의 수명을 길게 하고, 치주병 및 흡인성 폐렴을 예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획됐다. 교육에는 정민숙 구강건강교육 전문 치과위생사와 '부산시 프리랜서 구강건강교육자 치과위생사 모임' 소속 23명의 치과위생사가 함께했다.

교육내용은 △구강기능을 향상시키는 입근육마사지 △치면세균막 제거 방법 등 구강위생관리 △흡인성 폐렴예방과 구강건조증 완화를 위한 입체조 △올바른 씹기 방법과 삼킴을 주제로 했다. 이어 치과위생사 봉사자들은 신도들을 위해 직접 입근육마사지와 구강청소를 실시하며 올바른 관리방법을 조언했다.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일 정도로 소중하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부실해져 몸 전체의 건강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며 "음식 잘 씹어 삼키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제부터 신도님들은 부처님 말씀 잘 씹어 삼켜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